

釜山, 고고클럽서
악물먹여 끌고가

남치 2명 女高生 강요 나체쇼 술집

【釜山 趙成振기자】釜山동

부경철서는 23일 여고생 2명
을 남치, 술집에서 나체쇼를
강요하는 등 음란행위를 시킨
東萊구 巨提동 공주집 주인
孫錫奎씨(27) 등 4명을 미성
년자 악취유인 등 혐의로 구
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
난해 11월 28일 밤 11시 반경
釜山 鍾九 釜田동 무림루즈고고
클럽에서 S 여상 1년 柳모
(16) (金문양)(16) 등 2명에게
절단, 미린준비한 악물을 과
자와 함께 먹여 실신시키고
주점으로 남치, 폭행을 한 뒤
주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지
난 2일까지 나체쇼를 시킨 혐
의를 받고 있다.
柳錫奎씨는 지난 3일 세탁소
에 간다며 술집을 탈출했으나
모 돌아간 뒤 부모들에게 이사
신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던 것.

婦女子 百 20명 남치

유홍가에 팔아넘겨

5派 12명 구속

서울지검북부지청을 수부(金
英求 부장검사)는 7일 전문
남치(金문양) 등 12명 남치
치하거나 신분잡지 등의 허위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착아온 미성년자들을 京畿道
坡州, 忠南 溫陽, 瑞山 등지의
유랑가에 팔아넘겨온 인사매
매조지 5개파 24명들을 적발
했다. 검찰은 이주자의 鄭永
奎씨(47·京畿道 水原市 梅山路
2가2의6) 등 12명들을 영리
유인, 미성년자 보호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있다. 崔

玉粉씨(41·여·京畿道 坡州 京
泉順 法院리 402동 6명
을 간첩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鄭
永奎씨는 함께 구속된 鄭炳
鉉씨(28) 등 전부터 남치(송칭
박인근) 7명들을 고공, 지난 10
월 16일 새벽 2시경 忠南 溫陽
의 수경전역과 忠南 鄭道양
(16) (金문양)(19) 등 2명들을 술
한잔 하자고 꼬여 미리 대
기시켜 놓은 서울 1도 973
6호의 철(000)차에 태워 자신들
이 운영하는 京畿道 水原市 梅

山路 1가 14의 16 삼화여인숙
에 데려가 음란행위를 시키
는 등 지금까지 28명들을 남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화대가
운데 월명관 3천여만원씩을
가로채왔다는 것.
또 구속된 宋明子씨(35·여

引狀 에 만나와

峴陽(영) 등 2명에게 '카페노다
수입이 훨씬 좋은 직장을 알
선해주겠다'고 속여 崔榮男
씨(45·京畿道 坡州 京坡州 延
豐리 405)에게 한사람당 80
만원씩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
검찰에 적발된 이들 인신
매매조지는 지금까지 1백 20
여명의 부녀자를 남치, 음란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랑가에

文貴童 피고

5년 선고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柳台鉉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富川 경찰서 성고무사건
의 文貴童 피고인(41·전경장)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文 피고인에게 원심이 도둑
폭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
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을 선고했다.

후지동

▲...서울대병원
참사는 7일 어머
니의 유전면역시
험을 대신 치르다
적발된 閔모씨(22

여·대학원생)를 고문사위
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검찰에 따르면 閔씨는
6일 낮 12시 50분경 서울 盧原
구 上 洞 동문면허시험장에
서 어머니(49)의 주머니를
가수현상에 자신의 사진을
이루 필기 시험을 대신 지

대낮에도 횡행하는 여성납치

공권력조차 외면...인신매매 극형 처해야 88.12.7

온 나라가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하다. 광주민주화운동의 학살자들과 5공비리 주범들을 색출하고 추궁하는 작업에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 다시는 이 땅에 그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불행에 방조한 사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도덕적으로 말이다.

지난 11월26일 광주직할시 서부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가까스로 매춘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 26세의 황아무개라는 미혼여성이 있다. 그녀는 가출소녀도 평소 행실이 불량한 여자도 아니었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교단에 선 지도 2년여된 장래가 기대되고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학교 여교사였다. 그런데 지난 9월8일 저녁 두 명의 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인신매매 당한 뒤 광주직할시

양동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윤락 행위를 강요받았고 수차에 걸쳐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다. 그사이 인근 파출소에 신고도 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광주일보> 11월29일자). 자신의 여성과 인성과 인생을 처참히 파괴당한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가슴

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농락과 유린을 한 적은 없는가 자성해볼 일이다.

강제로 매춘굴에 끌려간 여자가운데 상당수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공권력은 이를 돕기는커녕 묵살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단과 술집주인들은 범죄사실이 비록

밝혀져 구속이 된 다 해도 곧 풀려나 다시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도 역시 도덕정치의 부재와 시민의 윤리의식의 타락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비인간적 인신매매가 도처

국민기자석

이 매어지는 것 같다.

어찌된 일인지 근간 들어 대도시의 중심지에서까지 밤낮을 불문하고 인신매매단의 여성납치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의 딸과 자매가 언제 이런 엄청난 변고를 당하게 될지 심히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고 했다. 부천서 사건 권씨의 성고문에 대해 울분을 느꼈던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딸과 자매는 끔찍이도 보호하면서 다른 여성들에게는 오락과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아무 수치심이

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 우리는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관계 당국은 항상 있었던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더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인신매매 행위자에 대해 극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라.

이 중 환 <광주시 서구 월산동 24-40>